

## 중 · 한 학습자 동형 한자 어휘 학습 양상 연구

薛珊\*

### 目 錄

1. 들어가는 말
2. 어휘 테스트 설계 및 실시
3. 어휘 테스트 결과 분석
4. 말뭉치 자료 분석
5.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한국어를 어휘의 종류로 나누어 보면 고유어 · 차용어인 한자어 · 외래어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한자어는 한국어 중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단어를 말한다. 한국 국립국어원 자료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의 주표제어 중 한자어의 비율은 '57.3%'이고, 여기에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복합어까지 더하면 그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Lado(1957)는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습관을 제2언어로 전이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였고, 이것이 제2언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이나 쉬운 점의 주요 원인이라고 가정하였다. 제2언어와 모국어의 유사한 구조면 배우기 쉬운 것

\* 延世大學校 韩国学协同课程 博士课程

이고, 서로 다른 구조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Prator(1967)는 난이도의 위계를 총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0단계는 두 언어 간에 차이점이 전혀 없어서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는 단계이고, 5단계는 모국어에 있는 하나의 항목이 학습 대상 언어에서 두 개 이상으로 분화되어 간접이 정점에 이르는 단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대조 분석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는 한국어의 한자어와 이에 해당되는 중국어 어휘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학습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추측하였다. 즉, 한국어의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의 형태와 의미가 같을 때,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되고, 의미가 다를 때,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하였다. 물론, 제2언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모두 단순히 모국어와 제2언어 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대조 분석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국어의 한자어와 해당 중국어 어휘가 제2언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각각의 습득 양상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구하여 향후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초적인 토석을 다지고자 대조 분석을 시작하였다.

한국어 한자어와 이에 해당되는 중국어 어휘에 관한 연구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와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 모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중한/한중 동형어', '중한/한중 동원어', '중한/한중 동형 한자 어휘'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의미와 형태를 기준으로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등 세부적인 분류로 더 나누었고, '박쥐말'(맹주역, 2004), '한국어와 중국어의 True Friends/ False Friends'(허용, 김선정, 2018) 등 비유적인 명칭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그동안 기존 연구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나 중국어 교육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과 달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를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 대상의 범위를 넓혔고, 두 집단의 학습자에게 같은 어휘로 구성된 테스트를 실시하여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중·한 동형 한자 어휘 습득 양상이 어떠한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험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우선 어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중·한 동형 한자 어휘에 대해 대조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어휘 테스트를 설계하여 두 집단 학습자에게 실시하며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과 같은 테스트 두 개를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휘 테스트. 둘째,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휘 테스트. 이 두 테스트를 통해 중·한 학습자의 동형 한자 어휘 학습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어휘 테스트에서 실험 결과로 부족한 부분은 중·한 학습자 말뭉치를 이용하여 분석을 더하였다.

## 2. 어휘 테스트 설계 및 실시

### 1) 어휘 대조 분석

대조 분석 가설에서는 두 언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목적으로 두 언어 사이의 여러 측면의 체계를 비교해야 하며, 외국어의 구조를 배울 때 유사한 구조는 배우기 쉬울 것이고, 차이가 나는 구조는 배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한자어 학습 양상과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어휘 학습 양상을 연구하려면, 먼저 대조 분석을 하여 두 가지 어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어휘 등급 목록(2017)’을 바탕으로 초급 한국어 어휘 한자어를 수집 및 정리하였다.

아래 표는 의미와 품사가 차이가 나는 한국어와 중국어 단어를 대조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1] 동형 한자 어휘의 비교

동형 한자 어휘 대조				
어휘	의미		품사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항상-恒常	어느 때에나 변함없이	(온도 등) 변함없이	부사	형용사
혹시-或是	1. 그러할 리는 없지만 만약에. 2. 어쩌다가 우연히. 3. 짐작대로 어쩌면. 4.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분명하지 않아 말하기를 망설일 때 쓰는 말.	...이거나 (혹은) ...이다. ...아니면 ...이다.	부사	접속사
역시-亦是	1.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2. 생각했던 대로. 3. 이전과 마찬가지로. 4. 아무리 생각해도.	또, 여전히	부사	부사
가족-家族	주로 한 집에 모여 살고 결혼이나 부모, 자식, 형제 등의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혈액, 혼인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 여러 세대 포함.	명사	명사
방학-放學	학교에서 한 학기가 끝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것. 또는 그 기간.	학교에서 오전, 오후 또는 하루의 수업이 끝남.	명사	동사
신문-新聞	1. 정기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을 알려 주는 간행물. 2. 신문 기사를 실은 종이.	신문사, 방송구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소식, 뉴스.	명사	명사
운전-運轉	기계나 자동차를 움직이고 조종함.	(기계가) 돌아가다. 돌다. 운행하다.	명사	동사
결석-缺席	학교나 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음.	법원, 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음.	명사	동사
생선-生鮮	먹기 위해서 물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물고기.	가공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의 통칭, 해산물, 고기, 과일 등 포함.	명사	명사

만두-馒头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후 그 위에 다진 고기나 야채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넣고 빚은 음식.	편빵 (소가 없는 것을 말함)	명사	명사
선배-先輩	1. 같은 분야에서 자기보다 먼저 활동하여 경험이나 지위 등이 더 앞선 사람. 2. 같은 학교를 자기보다 먼저 입학한 사람.	선대, 선구자	명사	명사
최고-最高	1. 정도가 가장 높음. 2. 가장 좋거나 뛰어난 것.	1. (높이, 키 같은 단위)가 가장 높다. 2. (사회적인 위치, 수준 같은 것이)가 가장 높다.	명사	형용사
관심-关心	어떤 것을 향하여 끌리는 감정과 생각.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해) 신경을 씀.	명사	동사, 명사
필요-必要	요구되는 바가 있음.	꼭 있어야 함.	명사	형용사
수요-需要	어떤 소비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한 요구.	요구되는 바가 있음.	명사	동사, 명사
필수-必需	어떤 물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나 반드시 쓰임.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	명사	동사
식당-食堂	음식을 만들어 파는 가게.	(회사, 학교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가게.	명사	명사
출장-出场	임시로 다른 곳에 일하러 감.	(무대, 경기)에 나오다.	명사	동사
야채-野菜	밭에서 기르며 주로 그 잎이나 줄기, 열매를 먹는 농작물.	식용으로 하는 들에서 나는 야채. 산에서 나는 야채.	명사	명사
실수-失手	1. 잘 알지 못하거나 조심하지 않아서 저지르는 잘못. 2. 말이나 행동이 예의에 벗어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1. 손이 적당한 정도를 유지하지 못 해서 부정적인 결과 초래. 2. 지다. 패배하다.	명사	동사
학원-学院	1. 일정한 목적, 교과 과정, 제도 등에 의하여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 2. 학생을 모집하여 지식, 기술, 예체능 등을 가르치는 사립 교육 기관.	대학교의 부속 대학, 단과대학	명사	명사

이 표를 통해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중에 같은 한자를 사용하지만 의미와 품사 종류에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미나 품사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과연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오류를 범할 지 의문을 게 되었다. 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았다.

'HSK动态作文语料库ver2.0'에 다음과 같은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가 있다.

①\*首先, 家族在一起的时间变长。

②\*在国内的时候, 我没感觉到家族的重要性。

①~②번 비문을 통해서 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한자어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이에 맞대응하는 중국어 어휘를 정확히 쓰지 못하고 한국어 한자어 그대로 '家族'이라고 써서 비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①에서 '가족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중국어 어휘는 '家人'을 써야 하고, ②에서 '가족 집단'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중국어 어휘는 '家庭'을 써야 하는데 학습자가 모두 '家族'로 잘못 사용하였다.

'한국어학습자말뭉치'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가 있다.

③\*현대 가족에서 에어컨이나 난방이 있다.

④\*가정관념 그 변하기 때문에 그 어 자 자기가 자아실현 이런 의식이 또 음 높이기 때문에 일인 가구가 더 늘고 있 있어요.

③~④번 비문을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도 모국어 때문에 한국어 어휘 '가족'과 '가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에서는 '가정'이라고 써야 하고, ④에서는 '가족'이라고 써야 하는데 학습자가 반대로 사용했다.

이처럼 한국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 두 부류 모두 비슷한 오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조 분석 결과와 학습자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어휘 테스트를 설계하였다.

## 2) 어휘 테스트 설계

### (1) 테스트 문항 설계

총 A, B, C, D, E 다섯 가지 문항 50개 문제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설계하였다. 테스트 내용은 ‘한국어 한자어 구별하기’, ‘의미 비교하기’, ‘품사·용법 비교하기’, ‘번역하기’로 구성하였다. 똑같은 테스트를 ‘중국인 학습자 대상’과, ‘한국인 학습자 대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언어만 바꾸어 실시하였고, A, B문항은 두 집단 모두 똑같이 구성하였고, 단 C, D, E 문항의 형식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C문항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한국어 단어의 품사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였고,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중국어 단어의 품사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였다. D, E문항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중국어 어휘나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였고,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한국어 어휘나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 (2) 테스트 실시

어휘 테스트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테스트 대상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와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학습자로 구성하였다. 테스트는 50개 문항으로 구성해서 25분 정도 내에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하였다.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고급인 중국인 두 명과 중국어 구사 능력이 고급인 한국인 두 명을 대상으로 예비 테스트를 통해 테스트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도 하였다.

### 3. 테스트 결과 분석

테스트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우선, 중국인 학습자 집단 내부의 결과를 분석하고, 한국인 학습자 집단 내부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에서 고급 학습자 간에 결과를 비교하였다.

#### 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어휘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테스트 결과를 문항별과 등급별로 분석하였다.

##### (1) 문항별 분석

중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테스트는 ‘기본정보’와 ‘테스트 문항’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하였다.

우선 테스트 대상의 ‘기본정보’를 분석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40명의 성별은, 남자는 10명(25%), 여자는 30명(75%)이었다. 학습자의 나이는, 18~25살은 26명(65%), 26~30살은 11명(27.5%), 31~40살은 3명(7.5%)이었다. 한국어를 학습한 시간은, ‘1년 이하’는 1명(2.5%), ‘1~3년’은 15명(37.5%), ‘3~5년’은 11명(27.5%), ‘5년 이상’은 13명(32.5%)이었다. 그리고 ‘모국어가 한국어 학습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15명(37.5%)은 ‘긍정적인 영향 있음’이라고 응답했고, 25명(62.5%)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 둘 다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학습자가 한국어 공부에 있어 모국어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둘 다 끼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테스트 문항’은 A, B, C, D, E 다섯 가지 종류의 객관식과 주관식 총 5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문항별로 분석하였다.

① A조 문항 결과

A문항은 ‘한국어 한자어 구분하기’이고, 총 10개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가 한자어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0개 어휘 중에서 5개는 한자어이고 5개는 고유어이며, 한자어 중에 중국어 어휘와 발음이 유사한 것도 있고, 발음이 완전히 다른 단어도 있었다. 테스트 결과, 고유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자어에 대해서는 한자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였다.

[표2] 중국인 학습자 A조 문항 결과

중국인 학습자 A조 문항 결과		
문항	한자어다	아니다
1. [감기]에 걸렸다.	24(60%)	16(40%)
2. [아주]마음에 듭니다.	3(7.5%)	37(92.5%)
3. 너희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	27(67.5%)	13(32.5%)
4. [겨울] 방학 동안 무엇을 했니?	7(17.5%)	33(82.5%)
5.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	24(60%)	16(40%)
6. [혹시] 내 과제 좀 도와줄 수 있니?	27(67.5%)	13(32.5%)
7. [과일]을 사 왔는데 바로 먹어도 될까요?	17(42.5%)	23(57.5%)
8. [역시] 공부를 안 했더니 성적이 떨어지네요.	18(45%)	22(55%)
9. 나도 [고기]는 좋아하는데 매일은 못 먹겠더라.	4(10%)	36(90%)
10. 우리 집 애들은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해요.	4(10%)	36(90%)

A문항의 2번, 4번, 7번, 9번, 10번 어휘는 고유어이다. 2번, 4번, 9번, 10번 문항은 정답률이 높게 나온 것에 반해, 7번 문항만 정답률이 57.5%에 그쳤다. 이는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어 단어 ‘水果’의 ‘果’자는 /kwo/로 발음하고, 한국어 ‘과일’의 ‘과’는 /kwa/로 발음하는데 두 발음이 비슷해서 학습자가 ‘과일’을 한자어로 추측해서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A문항의 1번, 3번, 5번, 6번, 8번 어휘는 한자어이다. 고유어와는 달리 한자어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은 40%~70%에 불과하다. 정답률이 제일 높은

어휘는 ‘혹시’(67.5%)와 ‘분위기’(67.5%)였고, 제일 낮은 단어는 ‘역시’(42.5%)이다. 이 결과도 발음의 유사성 여부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혹시(或是)는 한국어로 /hokʌsi/, 중국어로 /xuo si/라고 발음한다. 역시(亦是)는 한국어로 /jʌkʌsi/, 중국어 /i si/라고 발음한다. 두 단어를 비교해 보면 역시(亦是)보다 혹시(或是)의 중국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이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음의 유사성으로 한국어 한자어를 구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어휘 중 첫 번째 음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B조 문항 결과

B문항은 ‘의미 비교’하는 문항이었다. 같은 한자로 쓰는 총 20가지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 문항에 대해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 선택하게 하였다. 테스트 결과, 의미가 같은 어휘의 문항은 정답률이 높은 반면에 의미 다른 단어의 문항은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 문항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중국인 학습자 B조 문항 결과

중국인 학습자 B조 문항 결과		
문항	의미 같다	의미 같지 않다
11. 행복-幸福	40(100%)	0(0%)
12. 건강-健康	40(100%)	0(0%)
13. 계절-季节	40(100%)	0(0%)
14. 가족-家族	32(80%)	8(20%)
15. 방학-放学	20(50%)	20(50%)
16. 생활-生活	40(100%)	0(0%)
17. 신문-新闻	20(50%)	20(50%)
18. 운전-运转	19(47.5%)	21(52.5%)
19. 교육-教育	37(92.5%)	3(7.5%)
20. 결석-缺席	37(92.5%)	3(7.5%)
21. 만화-漫画	37(92.5%)	3(7.5%)
22. 미래-未来	40(100%)	0(0%)
23. 봉투-封套	17(42.5%)	23(57.5%)

24. 생선-生鲜	22(55%)	18(45%)
25. 만두-馒头	11(27.5%)	29(72.5%)
26. 학기-学期	40(100%)	0(0%)
27. 선배-先辈	24(60%)	16(40%)
28. 최고-最高	25(62.5%)	15(37.5%)
29. 청소년-青少年	39(97.5%)	1(2.5%)
30. 체육관-体育馆	40(100%)	0(0%)

B문항에서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같은 의미인 단어는 11 번, 12 번, 13 번, 16 번, 19 번, 21 번, 22 번, 26 번, 29 번, 30 번 문항으로 총 10개 문항이었고, 그 중에서 7개 문항의 정답률은 100%이며, 나머지 문항의 정답률도 90%에 달했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어와 의미 같은 한자어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문항에서 같은 한자를 사용하지만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는 14 번, 15 번, 17 번, 18 번, 20 번, 23 번, 24 번, 25 번, 27 번, 28번 문항이었다. 총 10개 문항 중 7개 문항은 정답률이 50%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문항의 어휘 세 가지는 ‘결석’-‘缺席’(7.5%), ‘가족’-‘家族’(20%), ‘최고’-‘最高’(37.5%)로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장 낮은 정답률로 분석된 세 가지 어휘의 의미로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 어휘는 한국어와 의미가 유사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결석’-‘缺席’둘 다 ‘어떤 자리에 나오지 않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국어는 주로 학교나 회의 등 장소에 나오지 않을 때 사용하는 어휘이고, 중국어는 주로 법원, 행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 사용하는 어휘이다. ‘가족’-‘家族’둘 다 ‘혈액, 혼인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국어는 주로 부모, 자식, 형제의 관계를 가리키고, 중국어는 ‘여러 세대로 이루는 집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개념의 범위가 더 넓다. ‘최고’-‘最高’둘 다 ‘가장 높은 정도’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국어는 광범위하게 쓸 수 있지만, 중국어는 ‘높이, 키, 사회적 위치’등 특정한 대상에만 쓸 수 있다. 이처럼 의미가 유사해도 사용하는 범위가 차이가 있는 어휘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③ C조 문항 결과

C문항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품사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였다.

[표4] 중국인 학습자 C조 문항 결과

중국인 학습자 C조 문항 결과			
문항	①动词(동사)	②名词(명사)	③形容词(형용사)
31. 관심	6(15%)	34(85%)	0(0%)
32. 중요하다	3(7.5%)	0(0%)	37(92.5%)
33. 필요하다	12(30%)	1(2.5%)	27(67.5%)
34. 필수	3(7.5%)	36(90%)	1(2.5%)
35. 수요	2(5%)	37(92.5%)	1(2.5%)

5개 문항 중에서, ‘중요하다’(92.5%), ‘수요’(92.5%), ‘필수’(90%)의 정답률은 90%가 넘었고, ‘관심’의 정답률은 85%에 달하였다. ‘필요하다’의 정답률은 67.5%에 그쳤고 ‘필요하다’를 동사라고 잘못 인지하고 있는 학습자도 30%에 달하기 때문에 어휘 활용과 관련된 오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 ④ D, E조 문항의 결과

모국어 전이 현상을 더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D, E문항은 중국어 어휘나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D문항은 어휘 번역 10개 문항, E문항 문장 번역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D문항 중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42번 ‘出场’(뜻: 등장하다), 43번 ‘野菜’(뜻: 들나물), 44번 ‘运动员’(뜻: 운동선수)이었다. 이 세 문항에서 테스트 대상자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한자 그대로 한글로 바꾸어 ‘출장’, ‘야채’, ‘운동원’으로 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모국어 전이 현상에 대해 분석해 보면 다음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째, 학습자가 목표어에서 이미 익숙한 단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중국인 학습자는 ‘등장하다’보다 ‘출장하다’라는 어휘를 더 많이 접하고, ‘산나물’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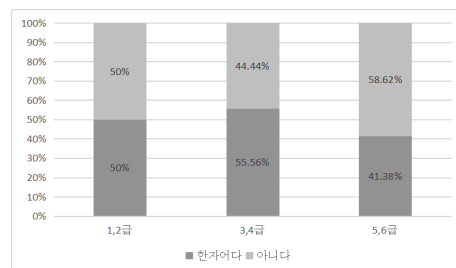
‘야채’라는 어휘를 일반적으로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와 한국어 한자어 의미를 섞어서 인지를 하였다. ‘운동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운동’뒤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원’을 붙여서 만든 표현이다.

(2) 등급별 분석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객관식 문제 중에 정답률이 낮은 문항 세 가지만 따로 뽑아 학습자의 언어 능력 등급별로 나누어 다시 분석해 보았다.

① 한국어(고유어) 한자어 구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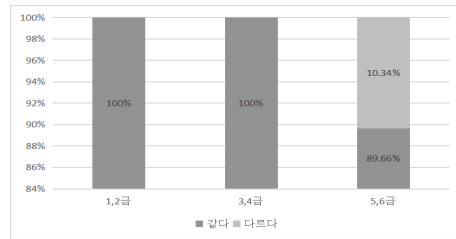
[도표1]은 ‘역시’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를 판단하는 8번 문항에 대해 학습자의 언어 등급별로 나타낸 것이다. 학습자의 정답률이 급수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로 인해 한국어 수준과는 상관없이 모국어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분석한 결과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한자어를 구별할 때 주로 발음으로 인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습자가 언어 등급이 높아지면서 어휘 지식이 풍부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음으로 한자어를 판단하기 때문에 초 · 중 · 고급 학습자들의 외국어 능력 수준과는 상관없이, 한자어 구분에 있어서는 모국어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1] 중국인 학습자 등급별 한자어 구별하기

②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의미 비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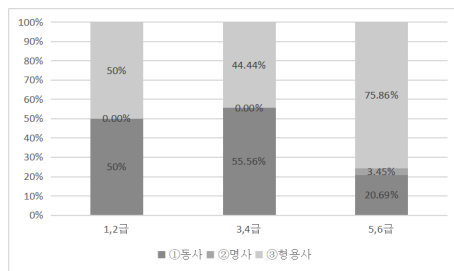
[도표2]는 ‘결석’과 ‘缺席’의 의미 인지에 관한 20번 문항을 학습자의 언어 등급별로 나타낸 것이다. 초급과 고급의 학습자를 비교해보면 정답률이 10%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급별 살펴보면 초·중급의 정답률은 똑같이 0%이고, 고급의 정답률은 10%가 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외국어 언어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한자어의 의미를 좀 더 잘 파악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2] 중국인 학습자 등급별 어휘 의미 비교하기

③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품사 비교하기

33번 문항은 ‘필요하다’의 품사 종류를 물어본 것이다. 학습자의 언어 등급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 [도표3]과 같다. 초·중급 정답률은 크게 차이가 없고, 고급은 초, 중급보다 정답률이 상당히 높았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 지식이 풍부해짐에 따라 품사 종류도 좀 더 잘 파악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도표3] 중국인 학습자 등급별 품사 비교하기

정답률이 낮은 세 문제만 따로 뽑아 학습자의 외국어 언어 등급별로 나누어 다시 분석해서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어를 구분하는 문항에서 초·중·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은 크게 차이가 없는 반면, 한자어의 의미나 품사를 구분하는 문항에서는 학습자의 등급에 올라감에 따라 정답률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등급별로 보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는 큰 차이는 없었고, 초·중급 학습자와 고급학습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한자어 습득 양상을 연구할 때, 초급과 중급 학습자를 같은 한 집단으로 묶고, 고급학습자만 한 집단으로 묶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집단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어휘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테스트 결과를 문항별과 등급별로 분석하였다.

### (1) 문항별 분석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 문항은 위에서 분석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와 같은 문항으로 언어만 바뀌어서 실시하였다.

우선 테스트 대상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성별은, 남자는 16명(40%), 여자는 24명(60%)이었다. 학습자의 나이는, 18~25살은 19명(47.5%), 26~30살은 11명(27.5%), 31~40살은 10명(25%)이었다. 중국어를 학습하는 시간은, '1년 이하'는 4명(10%), '1~3년'은 11명(27.5%), '3~5년'은 9명(22.5%), '5년 이상'은 16명(40%)이었다. 그리고 '모국어가 한국어 학습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은, 5명(12.5%)는 '영향 없음'이라고 대답했고, 22명(55%)은 '긍정적인 영향 있음'

이라고 응답했고, 13명(32.5%)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 둘 다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즉,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집단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에 비해 모국어의 영향을 더 적게 느끼고 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테스트 문항’은 위에서 분석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같은 문항이지만 언어만 바뀌어서 실시하였다. A, B, C, D, E 다섯 가지 문항으로 총 50개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테스트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A조 문항 결과

A문항은 ‘한국어(고유어) 한자어 구분하기’이고, 총 10개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위에서 분석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의 문항과 똑같이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어휘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테스트 결과를 문항별로 등급 별로 분석하였다.

[표5] 한국인 학습자 A조 문항 결과

한국인 학습자 A조 문항 결과		
문항	한자어다	아니다
1. [감기]에 걸렸다.	19(47.5%)	21(52.5%)
2. [아주]마음에 듭니다.	3(7.5%)	37(92.5%)
3. 너희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	30(75%)	10(25%)
4. [겨울] 방학 동안 무엇을 했니?	9(22.5%)	31(77.5%)
5.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	25(62.5%)	15(37.5%)
6. [혹시] 내 과제 좀 도와줄 수 있니?	17(42.5%)	23(57.5%)
7. [과일]을 사 왔는데 바로 먹어도 될까요?	16(40%)	24(60%)
8. [역시] 공부를 안 했더니 성적이 떨어지네요.	16(40%)	24(60%)
9. 나도 [고기]는 좋아하는데 매일은 못 먹겠더라.	6(15%)	34(85%)
10. 우리 집 애들은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해요.	5(12.5%)	35(87.5%)

A문항의 2 번, 4 번, 7 번, 9 번, 10번 어휘는 고유어이고, 정답률은 60%~92.5%로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과일’이라는 어휘는 40%의 학습자가 한자어로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인이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목표어의 역방향 전이를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A 문항의 1 번, 3 번, 5 번, 6 번, 8번 어휘는 한자어이고, 정답률은 40%~75%로 고유어보다는 약간 정답률이 낮았다. 정답률이 제일 높은 어휘는 ‘분위기’(70%)였고, 제일 낮은 단어는 ‘역시’(42.5%)였다. 이는 위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결과를 분석한 것과 같이 한국식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의 발음의 유사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② B조 문항 결과

B문항은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의미 비교’하는 문항이었다. 위에서 분석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테스트의 문항과 똑같이 구성하였다. B 문항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6] 한국인 학습자 B조 문항 결과

한국인 학습자 B조 문항 결과		
문항	의미가 같음	의미 같지 않음
11. 행복-幸福	38(95%)	2(5%)
12. 건강-健康	38(95%)	2(5%)
13. 계절-季节	37(92.5%)	3(7.5%)
14. 가족-家族	28(70%)	12(30%)
15. 방학-放学	20(50%)	20(50%)
16. 생활-生活	40(100%)	0(0%)
17. 신문-新聞	31(77.5%)	9(22.5%)
18. 운전-运转	13(32.5%)	27(67.5%)
19. 교육-教育	40(100%)	0(0%)
20. 결석-缺席	26(65%)	14(35%)
21. 만화-漫画	29(72.5%)	11(27.5%)
22. 미래-未来	40(100%)	0(0%)

23. 봉투-封套	18(45%)	22(55%)
24. 생선-生鮮	11(27.5%)	29(72.5%)
25. 만두-馒头	17(42.5%)	23(57.5%)
26. 학기-学期	39(97.5%)	1(2.5%)
27. 선배-先輩	21(52.5%)	19(47.5%)
28. 최고-最高	33(82.5%)	7(17.5%)
29. 청소년-青少年	39(97.5%)	1(2.5%)
30. 체육관-体育馆	39(97.5%)	1(2.5%)

B문항에서 한국어-중국어 한자어가 같은 의미인 어휘는 11번, 12번, 13번, 16번, 19번, 21번, 22번, 26번, 29번, 30번의 총 10개 문항이었다. 그 중에서 3개 문항의 정답률은 100%였고, 나머지 문항의 정답률도 대부분 90%가 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중국어와 의미가 같은 한자어를 잘 인식하고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화’-‘漫畫’의 정답률은 72.5%에 그쳤는데, 이는 만화라는 장르의 창작이 일본에서 시작되어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의 영향을 받은 한국어 학습자들은 ‘만화’를 일본어 외래어로 인정한 대상자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B문항에서 한국어-중국어 한자어가 다른 의미인 어휘는 14번, 15번, 17번, 18번, 20번, 23번, 24번, 25번, 27번, 28번으로 총 10개 문항이었다. 이 중 6개의 정답률이 50%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도 정답률이 낮은 세 어휘는 ‘최고’-‘最高’(17.5%), ‘신문’-‘新聞’(22.5%), ‘가족’-‘家族’(30%)이었다. ‘최고’와 ‘가족’에 대해서는 위에 이미 분석하였다. ‘신문’-‘新聞’도 역시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신문’은 한국어는 ‘신문 기사를 실은 종이’를 지칭하는 것이고, ‘新聞’은 한국어 한자 발음은 똑같이 신문으로 읽지만, 중국어는 ‘신문사 또는 방송국에서 나오는 새 소식’, 다시 말해, ‘뉴스’를 가리키는 어휘이다. 이처럼 의미가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다른 측면을 지칭하는 어휘도 학습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기가 쉽다고 볼 수 있다.

③ C조 문항 결과

C문항에서는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어휘의 품사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였다. 다양한 응답을 하였고, 모든 문항의 정답률은 50%가 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기] 한국인 학습자 C조 문항 결과

한국인 학습자 C조 문항 결과			
문항	①动词(동사)	②名词(명사)	③形容词(형용사)
31. 决心	20(50%)	16(40%)	4(10%)
32. 重要	8(20%)	4(10%)	28(70%)
33. 必要	18(45%)	9(22.5%)	13(32.5%)
34. 必需	22(55%)	5(12.5%)	13(32.5%)
35. 需要	35(87.5%)	2(5%)	3(7.5%)

5개 문항의 중국어를 한국어 한자어로 읽으면 모두 명사에 속하지만, 중국어로 읽으면 모두 다른 품사에 속한다. 그런데 이 문항에 ‘명사’라고 응답한 사람은 20%도 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 표를 통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는 품사를 구분하는 방면에서 모국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④ D, E조 문항 결과

D, E문항에서 모국어 전이 현상을 밝히고자 한국어 어휘나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D문항은 어휘 10개, E문항은 문장 5개를 번역하게 구성하였다. D문항 중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37번 ‘중학교’, 38번 ‘고등학교’, 40번 ‘식당’이었고, 한국어를 그대로 한자어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D문항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이 ‘초등학교’, ‘대학교’도 있었는데, 이 네 가지 어휘가 모두 서로 관련이 있고 ‘학교’의 하위 개념이지만 정답률이 달랐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정답률은 낮은 반면, ‘초등학교’와 ‘대학교’의 정답률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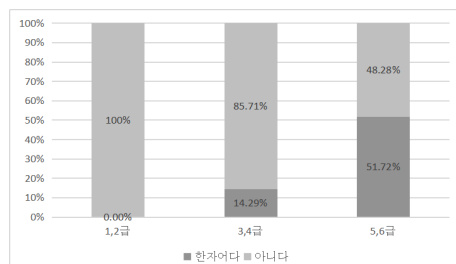
이는 학습자가 모국어 어휘와의 친숙도, 목표 어휘와의 친숙도로 인해 생긴 현상이라고 추측하였다. ‘학교’라는 개념이 학습자에게 이미 친숙한 어휘라서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목적어를 학습하면서 목적어의 어휘 지식도 작용한다. ‘초등학교’를 한국식 한자 그대로 쓰면 ‘初等學校’인데 중국어로는 ‘小學’이다. 이 어휘에서 ‘小’는 ‘初等’보다 훨씬 더 간단한 어휘이고, 더 먼저 학습하게 되는 어휘이다. ‘대학교’를 한국식 한자 그대로 쓰면 ‘大學校’인데, 중국어로는 ‘大學’이다. ‘大學’는 ‘大學校’보다 더 짧고 간단해서 언어 사용의 경제성 원칙에 따라 학습자가 ‘大學’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테스트 대상이 주로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大學’라는 어휘는 이미 친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다.

## (2) 등급별 분석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도 객관식 문제 중에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뽑아, 학습자의 언어 능력 등급별로 분류하여 다시 분석을 하였다.

### ① 한국어 한자어 구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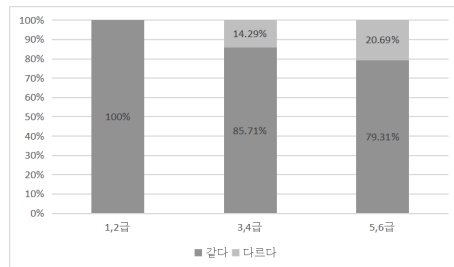
A문항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한자어 ‘역시’를 대상으로 등급별 분석을 하였다. [도표4]를 보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등급이 높을수록 ‘역시’를 한자어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목표어가 모국어에 대해 역방향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도표4]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등급별 한국어 한자어 구별하기

②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의미 비교하기

B문항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한자어 ‘최고’를 대상으로 등급별 분석을 하였다. [도표5]를 보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등급이 높을수록 정답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의 수준이 높아지고 목적어 지식이 풍부해지면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이를 덜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도표5] 한국인 학습자 등급별 어휘 의미 비교하기

3) 두 집단 고급 학습자 간에 비교

본 연구는 같은 어휘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자와 중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습자 각각의 모국어 전이 현상을 밝히고자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실시한 것이었다. 두 집단의 전체 대상자 수는 같았지만 내부 등급별 분포가 달랐던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에 좀 더 객관적으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각각 29명으로 두 집단의 학습자 수가 똑같이 분포되었던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객관식 문제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A문항 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8] 두 집단 고급 학습자 A조 문항 결과 비교

두 집단 고급 학습자 A조 문항 결과 비교				
문항	중국인 학습자의 응답		한국인 학습자의 응답	
	한자어다	아니다	한자어다	아니다
1. [감기]에 걸렸다.	20(68.97%)	9(31.03%)	14(48.28%)	15(51.72%)
2. [아주]마음에 듭니다.	2(6.9%)	27(93.1%)	3(10.34%)	26(89.66%)
3. 너희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	17(58.62%)	12(41.38%)	22(75.86%)	7(24.14%)
4. [겨울] 방학 동안 무엇을 했니?	4(13.79%)	25(86.21%)	8(27.59%)	21(72.41%)
5.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	19(65.52%)	10(34.48%)	16(55.17%)	13(44.83%)
6. [혹시] 내 과제 좀 도와줄 수 있니?	20(68.97%)	9(31.03%)	16(55.17%)	13(44.83%)
7. [과일]을 사 왔는데 바로 먹어도 될까요?	14(48.28%)	15(51.72%)	10(34.48%)	19(65.52%)
8. [역시] 공부를 안 했더니 성적이 떨어지네요.	12(41.38%)	17(58.62%)	15(51.72%)	14(48.28%)
9. 나도 [고기]는 좋아하는데 매일은 못 먹겠더라.	2(6.9%)	27(93.1%)	5(17.24%)	24(82.76%)
10. 우리 집 애들은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해요.	1(3.45%)	28(96.55%)	5(17.24%)	24(82.76%)

두 집단 고급 학습자 A문항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두 집단의 고급학습자 모두 한국어 고유어를 잘 인지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집단의 정답률이 낮은 한자어와 고유어가 같은데, ‘역시’와 ‘과일’이다.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발음의 유사성 때문이다. 즉, ‘역시’와 ‘亦是’의 발음이 유사해서 두 집단의 학습자가 이를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구분하지 못하였고 ‘과일’의 ‘과’와 ‘水果’의 ‘果’의 발음이 유사해서 학습자가 이 고유어를 한자어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차이점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자어를 인지하는데 정답률이 70%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한국어 학습에 있어 어휘에서 한자어로 분류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한자어에 대한

인지능력도 높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한자어를 잘 인지하는 것은 모국어의 전이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중국어 학습에 한자어로 인한 모국어 전이가 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전이는 긍정적과 부정적인 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두 집단의 학습자들이 부정적인 전이를 피해야 더 효율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B문항 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9] 두 집단 고급 학습자 B조 문항 결과 비교

두 집단 고급 학습자 B조 문항 결과 비교				
문항	중국인 학습자의 응답		한국인 학습자의 응답	
	의미 같다	같지 않다	의미 같다	같지 않다
11. 행복-幸福	29(100%)	0(0%)	28(96.55%)	1(3.45%)
12. 건강-健康	29(100%)	0(0%)	28(96.55%)	1(3.45%)
13. 계절-季节	29(100%)	0(0%)	27(93.1%)	2(6.9%)
14. 가족-家族	22(75.86%)	7(24.14%)	20(68.97%)	9(31.03%)
15. 방학-放学	14(48.28%)	15(51.72%)	14(48.28%)	15(51.72%)
16. 생활-生活	29(100%)	0(0%)	29(100%)	0(0%)
17. 신문-新闻	14(48.28%)	15(51.72%)	21(72.41%)	8(27.59%)
18. 운전-运转	13(44.83%)	16(55.17%)	7(24.14%)	22(75.86%)
19. 교육-教育	27(93.1%)	2(6.9%)	29(100%)	0(0%)
20. 결석-缺席	26(89.66%)	3(10.34%)	20(68.97%)	9(31.03%)
21. 만화-漫画	26(89.66%)	3(10.34%)	24(82.76%)	5(17.24%)
22. 미래-未来	29(100%)	0(0%)	29(100%)	0(0%)
23. 봉투-封套	9(31.03%)	20(68.97%)	11(37.93%)	18(62.07%)
24. 생선-生鲜	14(48.28%)	15(51.72%)	8(27.59%)	21(72.41%)
25. 만두-馒头	6(20.69%)	23(79.31%)	10(34.48%)	19(65.52%)
26. 학기-学期	29(100%)	0(0%)	29(100%)	0(0%)
27. 선배-先辈	17(58.62%)	12(41.38%)	17(58.62%)	12(41.38%)
28. 최고-最高	17(58.62%)	12(41.38%)	23(79.31%)	6(20.69%)
29. 청소년-青少年	28(96.55%)	1(3.45%)	28(96.55%)	1(3.45%)
30. 체육관-体育馆	29(100%)	0(0%)	29(100%)	0(0%)

두 집단 고급 학습자의 B문항 결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두 집단 모두 의미가 같은 어휘를 묻는 문항의 정답률은 의미가 다른 어휘를 묻는 문항의 정답률보다 높다. 이는 대조 분석 가설인 목표어와 모국어의 같은 내용은 긍정적인 전이를 일으키는 반면, 서로 다른 내용은 부정적인 전이를 일으킨다는 주장과 같은 결과이다.

둘째, 두 집단 모두 의미가 다른 어휘를 묻는 문항에 있어서, 정답률이 낮은 어휘가 비슷하였다. 두 집단 모두 ‘가족’-‘家族’, ‘결석’-‘缺席’, ‘최고’-‘最高’이 세 가지 문항 정답률이 낮았다. 이로 인해, 한자가 같고 의미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쓰임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는 고급 학습자라도 두 집단 모두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C문항 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각각 문항의 정답이다.

[표10] 두 집단 고급 학습자 C조 문항 결과 비교

두 집단 고급 학습자 C조 문항 결과 비교						
문항	중국인 학습자의 응답			한국인 학습자의 응답		
	①동사	②명사	③형용사	①동사	②명사	③형용사
31. 관심-关心	2(6.9%)	27(93.1%)	0(0%)	13(44.83%)	12(41.38%)	4(13.79%)
32. 중요하다-重要	2(6.9%)	0(0%)	27(93.1%)	7(24.14%)	3(10.34%)	19(65.52%)
33. 필요하다-必要	6(20.69%)	1(3.45%)	22(75.86%)	12(41.38%)	9(31.03%)	8(27.59%)
34. 필수-必需	3(10.34%)	25(86.21%)	1(3.45%)	15(51.72%)	3(10.34%)	11(37.93%)
35. 수요-需要	2(6.9%)	26(89.66%)	1(3.45%)	26(89.66%)	1(3.45%)	2(6.9%)

두 집단 고급 학습자 C문항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집단에 비해 정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 유형의 차이점 때문이다. 한국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다양한 반면, 중국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없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품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단어와 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인 학습자가 중국어를 학습할 때, 품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학습에 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품사 구분에 있어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더 높게 나온 것이다.

#### 4. 말뭉치 자료 분석

위 어휘 테스트의 '품사 구별하기' 문항에서 두 집단 학습자 모두 정답률이 낮은 '필요하다-必要'에 대한 학습 양상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 말뭉치를 바탕으로 다시 분석을 하였다.

한국 국립국어원 '학습자언어 원시 말뭉치'에서 중국 국적이고 중국어가 모어인 학습자의 문어 자료로 '필요하다'를 분석해 보았다.

[표11] 말뭉치로 통계를 낸 중국인 학습자 '필요하다' 학습 양상

말뭉치로 통계된 중국인 학습자 '필요하다' 학습 양상		
	올바른 형태	오류 형태
서술어로 사용하는 경우	~ 필요하다.	~ 필요한다.
어절 수	298	252
수식어로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	필요하는 ~
어절 수	300	47

표11로 정리한대로 중국인 학습자의 '필요하다' 학습 양상에 있어서 의미적 오류 보다는 형태적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필요하다'를 구문에서 서술어로 사용하는 경우, 오류 형태인 '~ 필요한다'가

252개 어절로 정확한 형태와 비슷한 규모로 나타난 것이다. 어휘 범주로 보면 한국어에서 '필요하다', 중국어에서 '必要'는 모두 형용사로 쓰인다. 그렇다면 중국인 학습자 중 많은 사람들이 대체 왜 한국어에서 '필요하다'를 동사와 같은 활용형으로 사용하는 것일까? 이러한 양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중국인 초급 학습자 한 명, 고급 학습자 한 명에게 일반적으로 한자어 '필요하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할 당시 머릿속에 그려지는 생각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 ① 초급 학습자와의 인터뷰

필자: '이것이 필요하다'와 '필요하는 것'는 맞는 표현인가요? 이유가 뭐예요?

학습자: 맞아요. '필요하다'는 동사라서 수업에서 배운 규칙에 따라 이렇게 써요.

필자: 그럼 '필요하다'를 한자로 표기할 수 있어요?

학습자: 必要

필자: '必要'는 중국어에서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학습자: '必要的~'라고 쓰니까, 형용사예요.

필자: 그럼 왜 한자 형태가 같은 한국어 단어 '필요하다'를 동사라고 생각해요?

학습자: 아, '필요' 뒤에 '하다'가 있잖아요. '하다'가 있으면 동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需要'예요. '需要'는 동사예요.

필자: 그럼 '필요하다'를 학습할 때, 형태가 같은 단어 '必要'가 떠오르지 않나요?

학습자: 아니요. 단어를 외울 때, '必要'와 연결시켜서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사용할 때는, 머릿속에서 '需要'가 떠올라요.

#### ② 고급 학습자와의 인터뷰

필자: '이것이 필요하다'와 '필요하는 것'은 맞는 표현인가요? 이유가 뭐예요?

학습자: 틀렸어요. '필요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말할 때 이러한 틀린 표현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은 후에야 비로소 틀렸다고 인식하게 되고 고쳐서 다시 말해요.

필자: 이럴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학습자: '필요하다'를 사용할 때, 막상 머릿속에 중국어 단어 '需要'가 떠올라서 '需要'의 영향을 받아서 습관적으로 동사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위 인터뷰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어 학습 시간, 한국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두 학습자가 모두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필요하다'와 중국어 단어 '需要'를 연결시켜서 반응했다. 즉 한자 형태 같은 단어 '必要'보다 의미적으로 같은 단어 '需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 것이었다. 둘째, 초급 학습자가 '필요하다'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영향보다 한국어 어휘 규칙에 대한 오해로 인해 오류를 범했다.

다시 말하자면, 학습자가 한자의 형태가 같은 단어의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의미가 같은 단어의 영향 또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모국어의 영향 외에도 한국어 자체의 형태 변화 복잡성과 학습자가 제2언어 규칙에 대한 오해도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중국 북경어언대학교 'HSK動態作文語料庫ver2.0'에서 한국 국적 학습자 자료에 나온 '必要'를 분석해봤다. 말뭉치에서 '必要'를 검색한 결과, 119개 어절이 나왔는데, 그중 많이 나온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⑤\*我們爲了解決代溝的問題一定必要真心的對話。

⑥\*在市場里面我必要的東西都有。

⑤⑥모두 문맥에 따르면 '需要'를 사용해야 하는데 '必要'로 잘못 사용한 비문이다. 여기서 의미적으로도 오류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용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위 문장을 통해서 한국인 학습자가 '必要'를 사용할 때, 한자 형태 같은 모국어 어휘 '필요(하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5. 맺는 말

본 연구는 제2언어 습득 이론에 있어 대조 분석 가설과 모어 전이 이론으로 초급 한국어 한자어를 수집하고 중국어 어휘와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40명과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어휘 테스트를 실시한 것이다.

우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한자어 학습 양상을 분석하였다. 발음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음, 특히 단어의 첫 번째 글자의 발음이 유사한 경우 모국어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미 측면에서 보면, 학습자가 중국어와 한국어의 의미가 같은 어휘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쓰이는 용도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어휘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정도가 낮았다.

그리고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학습 양상을 분석하였다.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는 중국어 학습에 있어 모국어에서 익숙한 내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전이 현상이 있었고, 이에 반해되려 제2언어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해서 익숙한 어휘는 모국어 전이 현상이 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국어의 순방향 전이 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어의 역방향 억제 전이 현상도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집단의 고급 학습자의 테스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두 집단 학습자 모두 의미 인지 방면에서 모국어 전이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자어를 구분하는 것과 한자

어 품사를 인지하는 것에 대해 정답률이 더 높은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에 해당 하는 말뭉치 자료 분석 및 학습자 인터뷰를 한 결과, 학습자가 한자의 형태가 같은 어휘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의미가 같은 어휘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모국어의 영향 외에도 제2언어 자체의 복합적인 요소가 학습 양상에 있어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대조 분석 이론에 따라 모국어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우선 제2언어의 공부할 항목을 자신의 모국어에 해당하는 항목과 머릿속에서 연결시켜야 모국어의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도 중 · 한 한자 동형 어휘가 반드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두 집단의 학습자가 한국어의 한자어에 대해 한자어라고 인식하지 않은 결과도 있었고 모국어에서 해당 동형 어휘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국어 외에도 한국어와 중국어 각각의 유형적 특징과 다양한 요소, 학습자의 인지 활동도 학습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 분석에서 더 나아가 교육 및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기존 대조 연구를 바탕으로 중 · 한 동형 어휘에 대해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하다.

지금 까지 어휘 대조 분석 · 어휘 테스트 · 말뭉치 자료 분석 · 학습자 인터뷰 등 방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한자 동형 어휘 학습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두 언어를 동시에 고려해서 분석해야 해서 어휘 자료를 선정하고 정리할 때 여러 방면에서 정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였다. 이에 다소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둘째, 두 집단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분석 및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총 80명밖에 모집하지 못했고, 학습자의 언어 등급도 다소 고르지 못해 분석할 때 등급별로 나누지 못해 세밀하지 못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학습 양상에 중점을 맞추어 분석하여 어휘 의미 · 형태 연구와 대조 분석 방면

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한계점은 향후 계속해서 연구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며, 중국인과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동형 한자 어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갈 것이다.

## 參考文獻

-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어휘 등급 목록(2017)」, 2018.
- 맹주억,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어휘 간섭 요인 박쥐말(I)」, 『외국어 교육』 제11권4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4.
- 맹주억,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어휘 간섭 요인 박쥐말(II)」, 『외국어 교육』 제12권3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5.
- 허용, 김선정, 『대조언어학』, 서울: 소통, 2018.
- 国家汉语国际推广领导小组办公室,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 2008.
- 国家汉语国际推广领导小组办公室, 「新汉语水平考试 (HSK) 词汇」, 2012.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 『现代汉语词典』, 商务印书馆, 201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mainAction>
- 국립국어원, 한국어학습자말뭉치,  
<https://kcorpus.korean.go.kr/service/goSummaryStatus.do>
- 北京语言大学, HSK动态作文语料库ver2.0,  
<http://hsk.blcu.edu.cn/Login>

## Abstract

### A Study on the Learning of Chinese and Korean Homographs by Chinese and Korean Learners

Xue Shan

This study considered both Chinese and Korean learners as subjects of research and conducted a vocabulary test on learners in two groups to find out how Chinese and Korean Homographs are acquired based on test results and what causes them.

Two vocabulary tests were conducted. Firstly, a vocabulary test for Chinese learners studying Korean. Secondly, a vocabulary test for Korean learners studying Chinese. Through the vocabulary test, this paper analyzed the learning situation of Chinese and Korean Homographs between Chinese and Korean learners and compar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of learners.

**Key words** : Chinese and Korean Homographs, Vocabulary Test, Chinese Learners, Korean Learners

투 고 일 : 2020. 10. 10. / 심 사 일 : 2020. 10. 15. ~ 2020. 11. 15. / 게재확정일 : 2020. 11. 20.